제223호(2024. 4. 16.)

www.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남경수·명수환·곽혜선·구혜민·손찬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061-820-2382　jkim@krei.re.kr
내 용 문 의　남경수 전문연구원　061-820-2364　ksnam@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23호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4. 4.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www.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제223호(2024. 4. 16.)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남경수·명수환·곽혜선·구혜민·손찬호

요 약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2004. 4. 1.)를 시작으로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4년 4월은 FTA 이행 20주년임.

- 주요 FTA별 농업 부문 시장개방률은 미국(97.9%)이 가장 높고, 유럽연합(EU)(96.3%), 호주(88.2%), 캐나다(85.2%), 뉴질랜드(85.3%) 순이며, 칠레(71.2%), ASEAN(67.4%), 중국(63.9%)과 RCEP(69.0%)의 개방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

FTA 체결 20년 차인 2023년 우리나라 농식품 총교역액 규모는 526억 3천만 달러로 2004년 이후 연평균 6.0%씩 증가했으며, 수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6.2%, 수입액 증가율은 6.0%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약 5배 큰 농식품 수입국이지만 농식품 수출액도 꾸준한 증가 추이를 유지해 왔음.
- 2023년 수입액(436억 6천만 달러)이 전년 대비 9.8% 감소하고, 수출액(89억 7천만 달러)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2.5% 개선된 346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 FTA 체결국 대상 농식품 수출액은 2023년 기준 71억 3천만 달러, 수입액은 363억 8천만 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입액의 79.4%와 83.3%를 차지함.

FTA 이행 초기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 활성화로 특정국에 교역이 집중되었으나, FTA 체결 건수 증가에 따라 교역국 다변화 효과가 발생함.

- FTA 발효 20년 차(2023년) 우리나라 수입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입집중도(HHI)는 0.46으로 2004년(0.51) 대비 9.8% 감소했으며, 특히 최근 5년(2019~23년)간에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출집중도는 0.28로 2004년(0.36) 대비 22.2% 감소함.
- FTA 발효로 특정 국가에 관세 혜택이 주어지면 수출입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FTA 체결국 수가 확대됨에 따라 교역국이 다변화되면서 집중도는 하락함.

정부는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이는 산업의 성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에 배정된 총예산은 40조 7,217억 원이었으며, 그중에 88.8%인 36조 1,590억 원이 집행되었음.
- FTA 국내보완대책은 특히,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규모화 및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과수 부문에선 생산 기반 유지 및 고품질 전략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중심의 지원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0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2024년 4월 FTA 이행 20주년을 맞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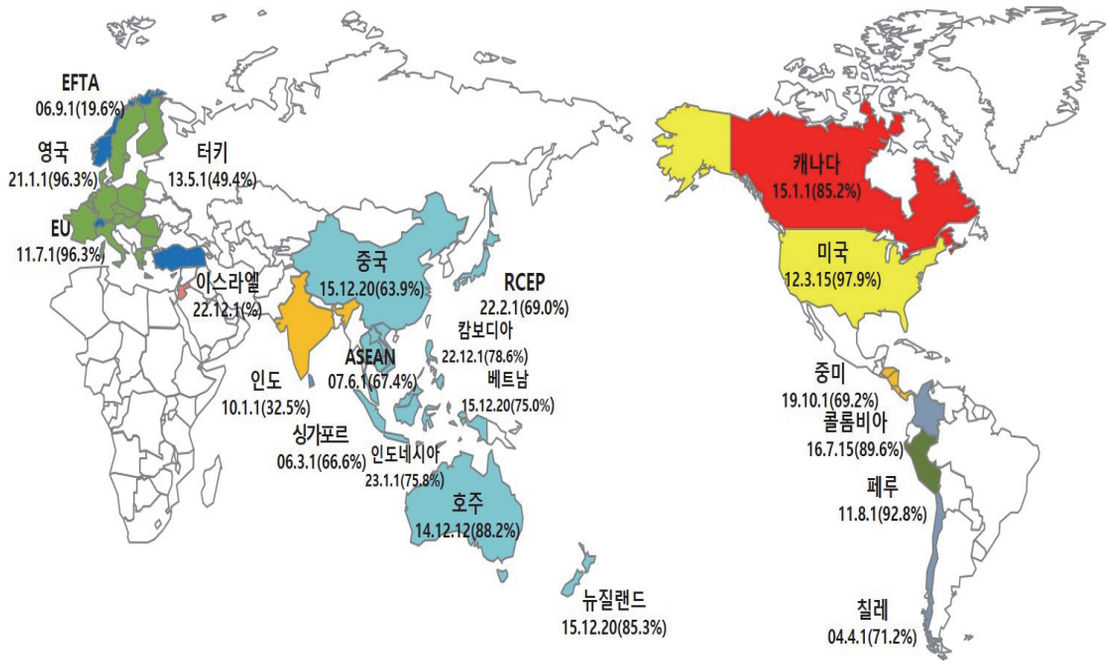
-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ASEAN, 유럽연합(EU), 미국, 영연방과 중국 등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음.
-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한국을 포함한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 기존 FTA 체결국과의 협정을 강화함.
- 최근 한·필리핀, 한·에콰도르 FTA가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메르코수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그 외에도 다수의 FTA가 서명·타결되거나 협상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와 같은 새로운 협상이 추진되고 있음.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농업 부문 평균 시장개방률은 72.0%로 시장개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97.9%)이며, 중국은 63.9%로 낮게 나타남〈그림 1 참조〉.

- 칠레(71.2%), ASEAN(67.4%), 중국(63.9%)과 RCEP(69.0%)의 개방률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미 FTA 시장개방률은 97.9%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농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였음.
- 한·EU FTA 개방률은 96.3%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한·미 FTA 다음으로 농산물 개방화 수준이 높음.
- 영연방 FTA 시장개방률은 호주가 88.2%, 캐나다 85.2%, 뉴질랜드 85.3%로 축산물과 일부 식량작물 등을 중심으로 수입 개방이 확대되었지만, 한·미 FTA와 한·EU FTA와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임.
- 한·중 FTA와 RCEP는 농업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시장개방률이 70% 미만으로 매우 보수적인 FTA라 할 수 있음.

그림 1 FTA 체결에 따른 국가별 시장개방률

단위: %



주: 괄호는 국가별 협정문의 농축산물 전체 품목(HS 10단위) 수에서 계절관세/현행관세유지/TRQ/미양허/부분감축 등을 제외하고, 관세율이 완전히 철폐되는 품목(HS 10단위) 수의 비율(관세철폐율)을 의미함.
자료: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main/), 검색일: 2024. 1. 23.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는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관세 장기 철폐, TRQ 적용과 농산물 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guard: ASG) 등을 통해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함.

-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로서 쌀, 사과, 배 등 21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칠레산 포도, 키위,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관세 감축이 적용되었음. 당시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칠레산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함.
- 한·ASEAN FTA에서는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구분하고, 민감품목을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 HSL)으로 분류함. 치즈, 오렌지와 사과 등은 초민감품목으로 2016년까지 50%의 관세율 상한을 적용함.
- 한·EU FTA는 계절관세, TRQ, 농산물 세이프 가드 등을 포함하여 20년까지 철폐 기간을 적용함.
- 한·미 FTA는 양허 제외,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 가드 적용 등과 함께 15년 이상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으며, 민감도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 또는 10년 철폐로 기간을 차별화하여 개방함.
- 한·호주 FTA에서 쇠고기는 15년 관세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 가드를 적용했으며, 낙농품(버터, 치즈)은 12년 이상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TRQ를 적용함.
- 한·캐나다 FTA에서 쇠고기는 15년 관세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 가드를 적용했으며, 낙농품은 양허 제외하였음.

- 한·뉴질랜드 FTA는 낙농품에 TRQ를 적용하였으며, 감자와 호박 등에 계절관세를 적용하였음.
- 한·중 FTA는 주요 신선 농축산물을 비롯한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되었으며, 대두, 참깨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해 TRQ를 적용함.
- RCEP 협상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청주, 맥주 등이 추가 개방되었으며, 중국은 녹용을 포함한 4개 품목, 뉴질랜드는 자두 1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일부 감축되었음.

표 1 FTA 체결 국가별 주요 양허 품목

구분	칠레 (2004년)	ASEAN (2007년)	유럽연합(EU) (2011년)	미국 (2012년)	영연방 3개국 (2014~15년)	중국 (2015년)	RCEP (2022년)
주요 품목 (양허안)	돼지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쇠고기	김치	녹용, 자두, 소주, 맥주, 강낭콩 등
	10년	HSL B/E	11년+ASG	15년+ASG	15년+ASG	1% 부분 감축	20년
	포도	치즈	치즈	돼지고기	칩용 감자	참깨	청주, 위스키, 커피조제품 등
	계절관세	HSL A	15년+TRQ	10년+ASG	계절관세	현행관세+ TRQ	15년
	포도주	오렌지	포도	옥수수	치즈 (신선/가공, 기타)	당면	커피, 초콜릿, 치즈, 레몬 등
	5년	HSL A	계절관세	7년+ASG	호주: 18년/20년+ TRQ 뉴질랜드: 12년/15년+ TRQ	10% 부분 감축	10년
	조제분유	옥수수	맥주맥	포도	포도	기타 채소	대두, 키위 등
	16년	HSL C	15년+TRQ	17년+ 계절관세	계절관세	10% 부분 감축	즉시 철폐

주 1) ASEAN의 HSL은 초민감품목으로 A는 2016년까지 50% 관세율 상한 설정, B는 20% 관세 감축, C는 50% 관세 감축, E는 양허 제외를 의미함.
2) 영연방 FTA의 캐나다산 치즈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됨.
3) 영연방 FTA의 캐나다와 뉴질랜드산 포도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됨.
4) RCEP 협정은 기체결 FTA 대비 한국 측 추가개방 품목만을 제시함.
자료: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main/), 검색일: 2024. 1. 23.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02

FTA 체결에 따른 농식품 교역 변화

2.1. FTA 체결국별 농식품[1] 교역

FTA 체결 20년 차(한·칠레 FTA 2004년 발효)인 2023년 우리나라의 농식품 총교역액은 526억 3천만 달러로 2004년 이후 20년간 연평균 6.0%씩 증가함.

- 2023년 총수출액은 89억 7천만 달러, 총수입액은 436억 6천만 달러로 2004년 이후 20년간 연평균 각각 6.2%와 6.0%씩 증가함.
- 2023년 수입액은 9.8% 감소하고,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2.5% 개선된 346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2023년 FTA 체결국 대상 농식품 수출액은 71억 3천만 달러, 수입액은 363억 8천만 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입액의 79.4%와 83.3%를 차지함.

- 2023년 FTA 체결국 대상 농식품 수입액은 9.6% 감소하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92억 6천만 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11.9% 개선됨.

표 2 **농식품 교역액 및 무역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2022년 (A)	2023년 (B)	변화율(%) 전년 대비 (B/A)	변화율(%) 연평균 (2004~23년)
전체		교역액	17,409	28,057	35,213	36,423	41,848	57,176	52,634	-7.9	6.0
		수출	2,856	3,604	5,746	6,460	7,570	8,768	8,971	2.3	6.2
		수입	14,552	24,453	29,467	29,963	34,278	48,408	43,662	-9.8	6.0
		무역수지	-11,696	-20,849	-23,721	-23,504	-26,709	-39,641	-34,691	12.5	-
	FTA 체결국	수출	1 (0.0)	339 (9.4)	1,688 (29.4)	3,694 (57.2)	4,692 (62.0)	7,023 (80.1)	7,126 (79.4)	1.5	-
		수입	205 (1.9)	3,655 (24.1)	14,922 (63.2)	24,820 (81.3)	29,033 (84.7)	40,227 (83.1)	36,381 (83.3)	-9.6	-
		무역수지	-204 (2.3)	-3,316 (27.1)	-13,234 (69.4)	-21,126 (86.4)	-24,341 (91.1)	-33,204 (83.8)	-29,255 (84.3)	11.9	-

주 1) 전체의 수치는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을 모두 포함하며, FTA 체결국 수치는 FTA별 발효 시점을 연 단위로 반영하여 계산함.
2) 괄호는 각 항목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FTA 체결국의 경우 국가별 발효 시점이 상이하므로 연평균 변화율은 표시하지 않음.
3) KATI 농식품수출정보 기준 수출입 실적(2023년 수출액 90억 2천만 달러, 수입액 438억 2천만 달러)과 포함하는 일부 세부 품목이 달라 수치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변화 추세(2004~23년 연평균 변화율 수출액 8.0%, 수입액 7.4%)를 보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4. 1. 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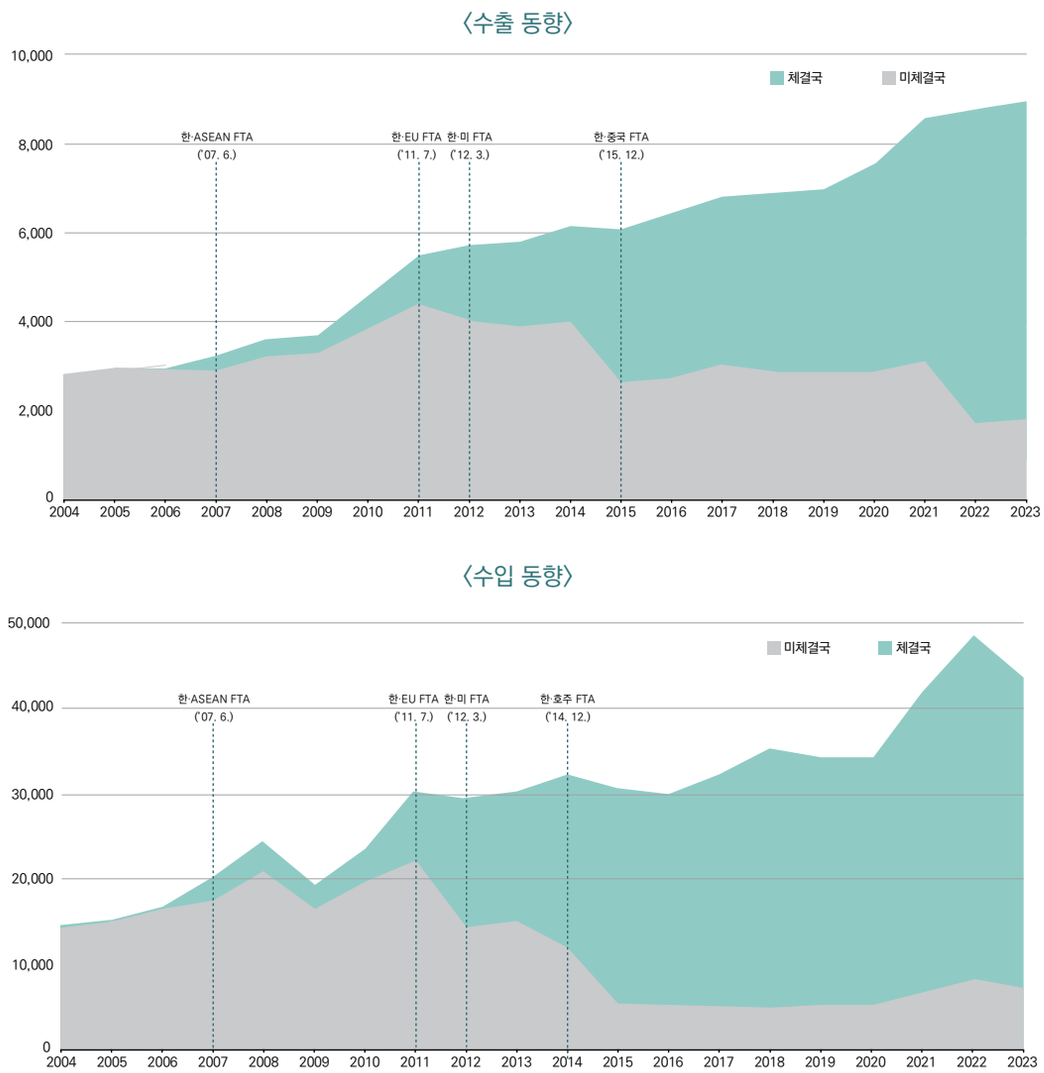
1) 농식품 품목은 신선 농산물과 세척, 절단 등을 포함한 1차 가공식품 그리고 가공식품 등 농식품 전체를 포함하는 범위임.

2023년 FTA 체결국 대상 농식품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79.4%를,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83.3%를 점유해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FTA 체결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과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액이 전체 농식품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농식품 교역 대상국과 FTA를 체결하는 시점 이후 급격히 증가함.
- 농식품 수입은 한·ASEAN, 한·EU, 한·미 그리고 한·호주 FTA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농식품 수출은 한·ASEAN, 한·미 그리고 한·중 FTA 이후 크게 증가함.

그림 2 FTA 체결 여부에 따른 농식품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4. 1. 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2. 주요 품목별 수출입[2)]

2023년 기준 수출액이 큰 주요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기타 음료, 기타 소스제품 등이며, FTA 체결국 대상 수출액이 각 품목 수출액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액보다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2023년 혼합조제식료품의 수출액은 10억 2천만 달러(체결국 대상 8억 4천만 달러)로 2004년부터 20년간 연평균 5.2%(체결국 대상 28.6%)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 FTA 체결국은 아세안 국가와 중국임.
- 라면의 2023년 수출액은 9억 5천만 달러(체결국 대상 약 8억 달러)로 동기간 연평균 10.0%(체결국 대상 27.8%)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 FTA 체결국은 중국과 미국임.
- 기타 음료의 2023년 수출액은 3억 9천만 달러(체결국 대상 3억 4천만 달러)로 동기간 연평균 20.6%(체결국 대상 31.5%)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주요 수출 대상 FTA 체결국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임.
- 김치의 2023년 수출액은 1억 6천만 달러(체결국 대상 1억 4천만 달러)로 동기간 연평균 2.2%(체결국 대상 33.8%)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 FTA 체결국은 일본(RCEP)과 미국임.

2023년 기준 수입액이 큰 주요 품목은 쇠고기, 옥수수, 돼지고기, 밀 등이며 옥수수와 닭고기를 제외하고 수입액 기준 90% 이상이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됨.

- 2023년 쇠고기의 수입액은 38억 5천만 달러로 미국 내 비육우 사육 마릿수 감소 및 가격 상승(USDA, 2023)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04년부터 20년간 연평균 10.3% 증가함. 미국과 호주 등 FTA 체결국산 수입액은 2023년 38억 1천만 달러로 동기간 연평균 19.8% 증가함.
- 2023년 돼지고기의 수입액은 20억 3천만 달러(체결국 대상 19억 4천만 달러)로 2004년부터 20년간 연평균 9.6%(체결국 대상 20.7%) 증가했으며, 주로 FTA 체결국인 유럽연합과 미국산이 수입됨.
- 밀의 2023년 수입액은 16억 9천만 달러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량을 늘렸던 기저효과[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04년부터 연평균 5.0% 증가함. 호주와 미국 등 FTA 체결국산 수입액은 2023년 15억 8천만 달러로 동기간 연평균 4.9% 증가함.
- 2023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6억 9천만 달러)이 전체 수입액(35억 6천만 달러)의 약 19%인 옥수수는 미체결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주로 수입되며, 체결국 중에서는 주로 유럽연합에서 수입됨.

2)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농축산물 중 수입액 규모가 크고 2차 가공식품류를 제외한 8개 품목과 수출액 규모가 큰 품목이나 신선 농산물 중 8개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입 동향을 살펴봄. 수출입 상위 25개 품목은 〈부표 1, 2〉 참조.
3) 농민신문(2024. 1. 19.), "지난해 '식용 밀' 수입 왜 줄었나…러·우 전쟁으로 서둘러 들여온 기저효과".

표 3 주요 농식품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04~'23년)
혼합 조제 식료품	ASEAN	35	53	36	95	93	98	112	133	196	252	228	10.4
	중국	57	44	47	53	68	70	90	103	131	184	218	7.4
	체결	0	12	37	116	361	376	553	562	623	964	842	28.6
	미체결	385	398	376	484	314	343	264	311	264	188	178	-4.0
	전체	**386**	**409**	**414**	**599**	**675**	**720**	**817**	**873**	**887**	**1,152**	**1,020**	**5.2**
라면	중국	11	15	29	28	29	35	75	93	149	189	215	16.8
	미국	41	20	20	20	22	26	36	50	82	76	127	6.1
	체결	0	4	15	17	66	86	217	312	458	622	796	27.8
	미체결	156	99	114	140	140	122	74	101	146	144	157	0.0
	전체	**156**	**102**	**129**	**157**	**206**	**208**	**290**	**413**	**604**	**765**	**952**	**10.0**
기타 음료	중국	1	3	9	17	25	29	37	37	54	76	110	27.0
	ASEAN	0	0	1	1	5	9	25	58	49	85	84	34.0
	체결	0	0	1	1	60	93	170	216	231	301	336	31.5
	미체결	11	21	38	64	91	87	44	57	35	42	59	9.1
	전체	**11**	**21**	**39**	**65**	**152**	**179**	**214**	**273**	**266**	**342**	**395**	**20.6**
기타 소스 제품	ASEAN	1	1	3	2	7	8	13	19	26	34	40	24.9
	미국	1	3	4	7	10	13	19	24	39	42	35	20.8
	체결	0	0	3	3	18	27	58	72	118	146	152	30.2
	미체결	7	16	18	24	27	41	28	37	49	51	49	10.6
	전체	**7**	**16**	**22**	**27**	**45**	**68**	**85**	**110**	**167**	**197**	**201**	**19,2**
김치	일본	97	63	75	83	85	57	47	56	71	61	61	-2.4
	미국	1	2	2	3	4	5	6	9	23	29	40	20.3
	체결	0	0	1	2	9	14	20	28	55	124	141	33.8
	미체결	103	70	84	97	98	70	59	69	90	16	15	-9.7
	전체	**103**	**70**	**85**	**98**	**107**	**84**	**79**	**97**	**145**	**141**	**156**	**2.2**
홍삼	중국	5	6	2	11	27	27	12	34	35	50	49	12.8
	홍콩	25	15	29	25	20	37	12	17	11	9	20	-1.2
	체결	0	0	1	2	5	4	17	39	37	54	55	29.6
	미체결	41	34	40	50	60	83	20	28	20	20	27	-2.2
	전체	**41**	**34**	**42**	**53**	**65**	**86**	**37**	**67**	**57**	**74**	**81**	**3.7**
배	미국	15	20	22	25	26	29	30	36	31	36	38	4.8
	ASEAN	1	1	2	2	1	3	9	19	10	12	11	13.6
	체결	0	0	2	2	27	33	41	56	43	51	51	28.2
	미체결	35	36	46	52	22	29	25	24	29	23	23	-2.2
	전체	**35**	**37**	**47**	**54**	**50**	**62**	**66**	**80**	**72**	**74**	**75**	**4.0**
딸기	ASEAN	0	1	4	15	12	18	19	26	34	40	52	28.8
	홍콩	0	2	4	7	8	12	12	17	17	16	16	20.4
	체결	0	1	4	15	12	18	19	27	35	42	54	29.1
	미체결	4	5	8	12	13	15	15	20	19	17	17	7.7
	전체	**4**	**6**	**12**	**26**	**24**	**33**	**34**	**48**	**54**	**59**	**71**	**16.1**

주 1) 각 품목의 주요 수입 대상 FTA 체결국은 2023년 우리나라의 해당 국가산 품목 수입액이 큰 순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셀의 음영은 해당 국가와 FTA가 발효된 해를 의미함.

2) 한·아세안 FTA와 한·중 FTA 발효 연도는 각각 2007년과 2015년으로, 동향을 격년으로 표시함에 따라 발효 연도 다음 해부터 표시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4. 1. 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 주요 농식품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04~'23년)
쇠고기	미국	103	0	197	422	522	764	1,035	1,635	1,815	2,624	2,210	17.5
	호주	355	694	680	634	753	943	1,096	1,116	1,141	1,483	1,378	7.4
	체결	0	0	0	0	523	1,710	2,271	2,885	3,083	4,449	3,813	19.8
	미체결	600	879	1,051	1,186	888	137	13	23	40	58	34	-14.0
	전체	**600**	**879**	**1,051**	**1,186**	**1,410**	**1,847**	**2,284**	**2,908**	**3,123**	**4,508**	**3,847**	**10.3**
옥수수	브라질	265	129	37	73	587	390	480	148	356	697	1,075	7.7
	아르헨티나	40	4	1	60	329	136	297	195	538	1,899	906	17.9
	EU	1	2	2	3	181	37	15	35	99	201	348	21.1
	체결	0	0	5	0	1,142	1,464	865	1,479	766	830	686	21.8
	미체결	1,438	1,271	2,825	2,000	1,475	1,180	1,044	666	1,622	3,461	2,873	3.7
	전체	**1,438**	**1,271**	**2,830**	**2,000**	**2,617**	**2,644**	**1,909**	**2,146**	**2,388**	**4,292**	**3,559**	**4.9**
돼지고기	EU	209	388	400	298	516	637	710	950	709	1,131	905	8.0
	미국	44	191	250	184	391	403	393	602	492	577	599	14.8
	체결	55	84	90	113	1,036	1,138	1,314	1,808	1,440	2,093	1,938	20.7
	미체결	298	694	787	604	171	118	49	53	39	76	90	-6.1
	전체	**352**	**778**	**876**	**717**	**1,207**	**1,256**	**1,363**	**1,861**	**1,479**	**2,168**	**2,028**	**9.6**
밀	호주	249	225	339	254	699	351	268	300	303	735	863	6.8
	미국	274	231	723	377	764	431	291	369	380	559	472	2.9
	체결	0	0	5	7	933	935	660	739	869	1,763	1,577	4.9
	미체결	665	669	1,309	1,095	856	290	363	276	110	39	111	-9.0
	전체	**665**	**669**	**1,314**	**1,102**	**1,790**	**1,225**	**1,023**	**1,014**	**980**	**1,801**	**1,688**	**5.0**
닭고기	브라질	0	31	52	83	145	138	168	207	211	390	423	16.6
	ASEAN	16	10	20	32	47	63	62	113	139	183	199	14.3
	체결	0	0	20	33	146	175	98	166	191	223	251	20.8
	미체결	55	118	135	174	154	147	168	207	211	390	423	11.3
	전체	**55**	**118**	**154**	**207**	**300**	**322**	**266**	**374**	**402**	**613**	**674**	**14.1**
감자	미국	31	32	44	67	97	123	124	129	136	175	177	9.7
	EU	1	1	1	4	9	9	14	20	30	64	75	23.3
	체결	0	0	0	0	106	137	173	190	195	287	307	40.9
	미체결	47	45	59	82	15	11	0	0	0	1	2	-15.4
	전체	**47**	**45**	**59**	**83**	**121**	**148**	**174**	**190**	**195**	**288**	**308**	**10.4**
바나나	ASEAN	87	145	154	209	245	305	276	286	211	227	247	5.7
	체결	0	0	154	209	248	310	287	304	244	263	282	2.7
	미체결	87	145	0	1	2	12	41	56	31	21	23	-6.7
	전체	**87**	**145**	**154**	**210**	**250**	**321**	**328**	**360**	**276**	**284**	**305**	**6.8**
포도	칠레	13	29	69	86	138	172	108	100	83	72	70	9.2
	미국	18	19	37	33	45	47	40	74	71	36	35	3.6
	체결	13	29	69	86	193	240	175	210	212	181	160	14.0
	미체결	28	30	41	37	3	2	0	1	1	1	1	-17.1
	전체	**42**	**59**	**110**	**123**	**195**	**242**	**175**	**210**	**213**	**182**	**160**	**7.4**

주 1) 각 품목의 주요 수입 대상 FTA 체결국은 2023년 우리나라의 해당 국가산 품목 수입액이 큰 순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셀의 음영은 해당 국가와 FTA가 발효된 해를 의미함.

2) 한·아세안 FTA와 한·EU FTA 발효 연도는 각각 2007년과 2011년으로, 동향을 격년으로 표시함에 따라 발효 연도 다음 해부터 표시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4. 1. 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03

FTA 체결에 따른 농식품 수출입구조 변화

FTA 체결에 따른 주요 농식품의 수출입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허핀달-허쉬만 지수(HHI)[4]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주요 농축산물[5]의 수출입집중도를 산출함.

-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해당 품목이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 또는 다양한 국가로 수출할수록 0에 가까운 값이 산출되고 특정 국가에 수출입이 집중될수록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냄.
- FTA 체결로 인한 관세 하락 영향으로 일부 FTA 체결국의 수출입이 집중되었다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증가해 원산지 다변화 또는 수출 다변화에 역행하는 양상을 보일 것임.
- 한편, FTA 체결국 간의 수출 경쟁,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입의존도가 낮아질 경우, 교역 불안정성이 감소하는 양상도 나타날 수 있음.

3.1. 주요 농식품의 수입집중도 변화

2023년 우리나라 수입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입집중도는 0.46으로 2004년(0.51) 대비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칠레 FTA 발효(2004년) 이후 수입집중도 평균은 0.51보다 낮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유지하다 최근 5년(2019~23년)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주요 농식품(8개)별 수입집중도를 산출한 결과, 2004년 대비 수입집중도가 하락한 품목은 4개(돼지고기, 감자, 바나나, 옥수수)였으며, 수입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입집중도와 비교하여 수입집중도가 낮은 품목은 밀, 돼지고기, 옥수수[6], 닭, 높은 품목은 바나나, 포도[7]로 나타남.

- 품목별 수입집중도 평균이 가장 높은 품목은 바나나(0.84), 가장 낮은 품목은 밀(0.28)로 나타나 품목 간 수입집중도 편차가 큰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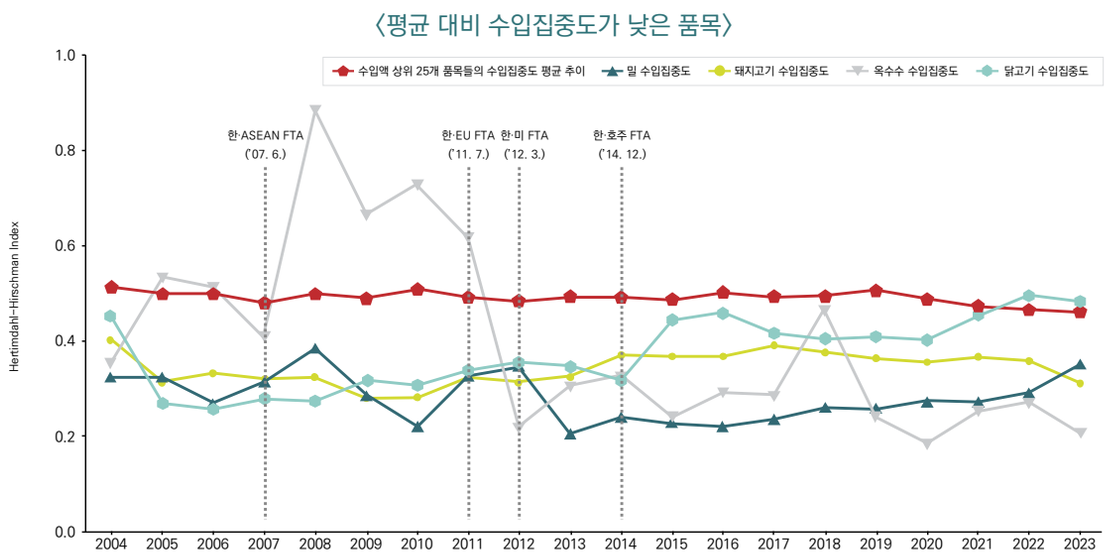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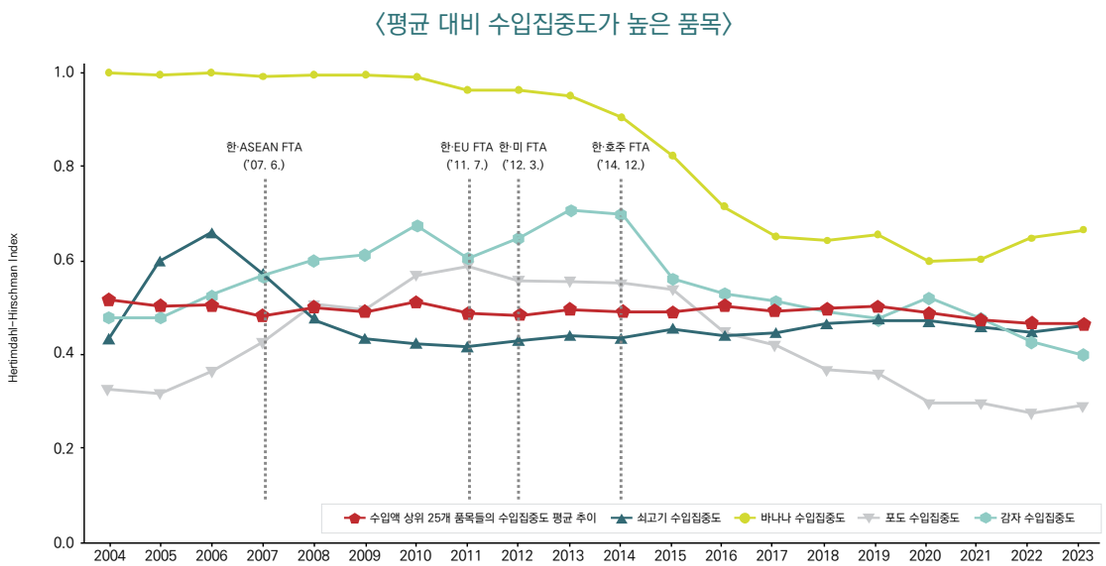
4)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는 시장의 집중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시장점유율 제곱값을 합으로 계산됨.
5) 2장 주요 농식품 수출·수입 동향에서 각 8개 품목의 수출입집중도를 살펴봄.
6) 옥수수 수입집중도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이후부터 수입액 상위 25개 품목 수입집중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7) 2008~15년 기준임.

- 돼지고기 수입집중도의 평균은 0.34로 최저 0.28에서 최고 0.40으로 나타남. 미국과 EU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두 국가의 비중 차이가 크지 않고 주로 두 국가 간 수입대체가 이루어지면서 수입집중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닭고기 수입집중도의 평균은 0.37로 최저 0.26에서 최고 0.5의 수입집중도를 보였으며, FTA 미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낮은 브라질산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수입집중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옥수수 수입집중도의 평균은 0.40으로 최저 0.18에서 최고 0.88의 수입집중도를 보였으며, 8개 품목 중 연도별 편차가 제일 큰 특징이 있음. 옥수수는 2008년 중국의 곡물 수출금지 정책으로 미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나, 2011년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으로 수입국이 다변화되면서 수입집중도도 감소함. 밀 수입집중도의 평균은 0.28로 최저 0.20에서 최고 0.38의 수입집중도를 보였으며, 0.4보다 낮은 수준에서 불규칙한 증감폭을 보임.
- 쇠고기 수입집중도의 평균은 0.47로 최저 0.42에서 최고 0.66의 수입집중도를 보였음. 2005~07년은 미국의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금지되면서 수입집중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연도별 편차가 크지 않고 비슷한 추세를 보임. 감자 수입집중도의 평균은 0.55로 최저 0.4에서 최고 0.71의 수입집중도를 보였으며,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바나나 수입집중도의 평균은 0.84로 최저 0.60에서 최고 0.99로 나타났음. 2004~13년까지는 1에 매우 가까운 수입집중도를 기록해 특정 국가(필리핀)로부터의 독점수준의 교역구조를 보였으나, 최근 베트남, 에콰도르, 콜롬비아산 바나나 수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입집중도는 감소 추세를 보임. 포도 수입집중도의 평균은 0.42로 최저 0.27에서 최고 0.59의 수입집중도를 보였으며, 2011년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FTA 발효로 특정 국가에 관세 혜택이 주어지면 수입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수입집중도가 급격히 높아진 품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FTA 체결국 수가 확대됨에 따라 교역국이 다변화되면서 수입집중도가 하락함.

그림 3 연도별 주요 농식품의 수입집중도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4. 1. 18.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2. 주요 농식품의 수출집중도 변화

2023년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출집중도는 0.28로 2004년(0.36) 대비 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ASEAN FTA 발효(2007년) 이후 수출집중도 평균은 0.3보다 낮은 수준에서 꾸준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 최근 5년(2019~23년)간 0.25수준의 값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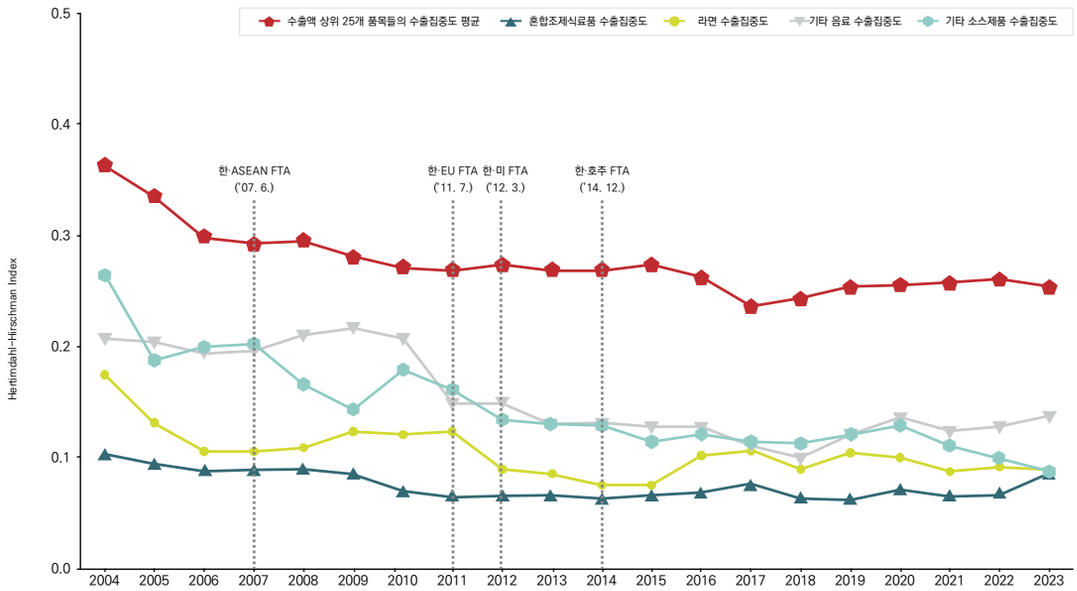
주요 농식품(8개)별 수출집중도를 산출한 결과, 수출액 상위 25개 농식품 수출집중도 평균과 비교할 때 수출집중도가 낮은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기타음료, 기타 소스제품, 높은 품목은 김치, 홍삼, 배, 딸기로 나타남.

- 품목별 수출집중도 평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김치(0.54), 가장 낮은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0.08)으로 나타나 품목 간 수출집중도 편차가 큰 편임을 알 수 있음.
- 혼합조제식료품 수출집중도의 평균은 0.08로 최저 0.06에서 최고 0.1의 수출집중도를 보였으며, 최근 4년(2020~23년)간 지속적인 감소세가 나타남. 라면 수출집중도의 평균은 0.1로 최저 0.07에서 최고 0.17의 수출집중도를 보였으며, 2005년부터 0.15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
- 기타음료 수출집중도의 평균은 0.15로 최저 0.10에서 최고 0.22의 수출집중도를 보였으며, 한·EU FTA 발효(2011년) 시점부터 급감하여 0.15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임. 기타 소스제품 수출집중도의 평균은 0.15로 최저 0.09에서 최고 0.26의 수출집중도를 보였으며, 한·ASEAN FTA 발효(2007년) 이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집중도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남.
- 김치 수출집중도의 평균은 0.54로 최저 0.23에서 최고 0.89의 수출집중도를 보였으며, 8개 품목 중 유일하게 매우 높은 수출집중도를 기록해 특정 국가(일본)에 수출이 집중되는 구조였으나, 네덜란드, 호주, 영국 등의 국가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집중도가 급격히 낮아짐. 홍삼 수출집중도의 평균은 0.37로 최저 0.24에서 최고 0.53의 수출집중도를 보였으며, 8개 품목 중 유일하게 2016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배 수출집중도의 평균은 0.39로 최저 0.31에서 최고 0.45의 수출집중도를 보였으며, 한·미 FTA 발효(201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임. 딸기 수출집중도의 평균은 0.3으로 최저 0.17에서 최고 0.76을 기록하며 전체 분석 기간(2004~23년) 동안 꾸준히 감소함. 특히, 2004~07년에는 싱가포르와 홍콩으로의 수출이 증가해 對일본 딸기 수출 집중구조가 완화되었고, 한·ASEAN FTA 발효(2007년) 이후에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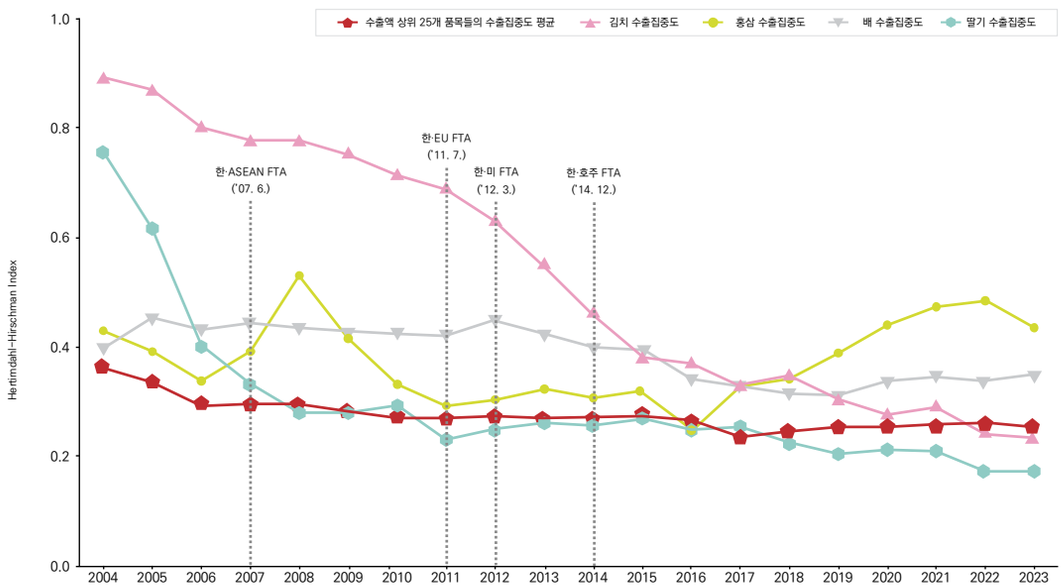
수출액 규모가 큰 품목일수록 수출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주요 농식품(8개)의 수출집중도는 홍삼을 제외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음. 딸기와 김치의 경우 2004년 대비 2023년에 0.6가량의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남.

그림 4 연도별 주요 농식품의 수출집중도 추이

〈평균 대비 수출집중도가 낮은 품목〉



〈평균 대비 수출집중도가 높은 품목〉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4. 1. 18.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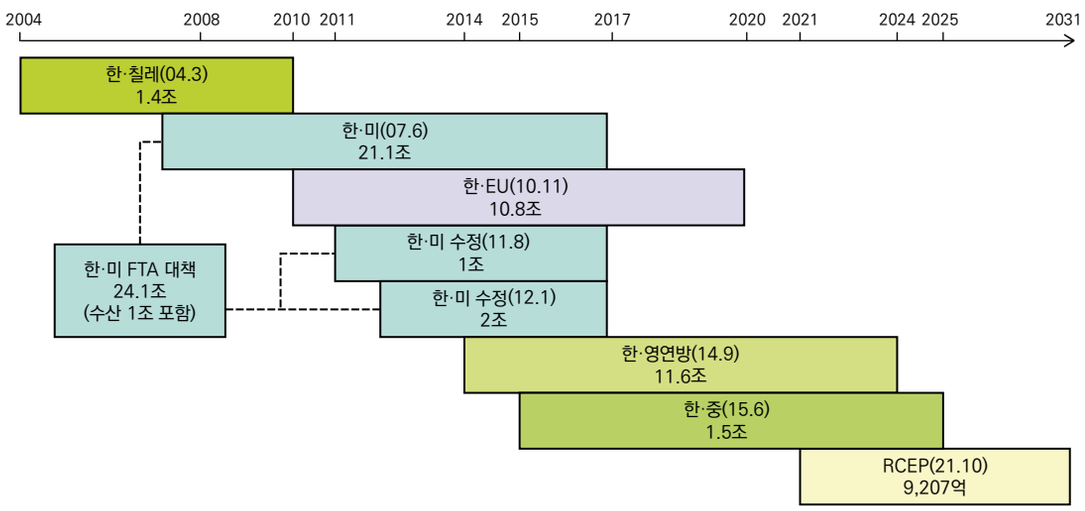
04

FTA 국내보완대책

정부는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4,800억 원 규모의 FTA 기금을 조성하였음.
- 정부는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총 23조 1천억 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 기금을 마련하였음.
- 한·중국 FTA와 RCEP는 각각 밭농업과 과수원예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여 낮은 수준으로 시장이 개방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보완대책 수립액 규모도 크지 않음.

그림 5 농업 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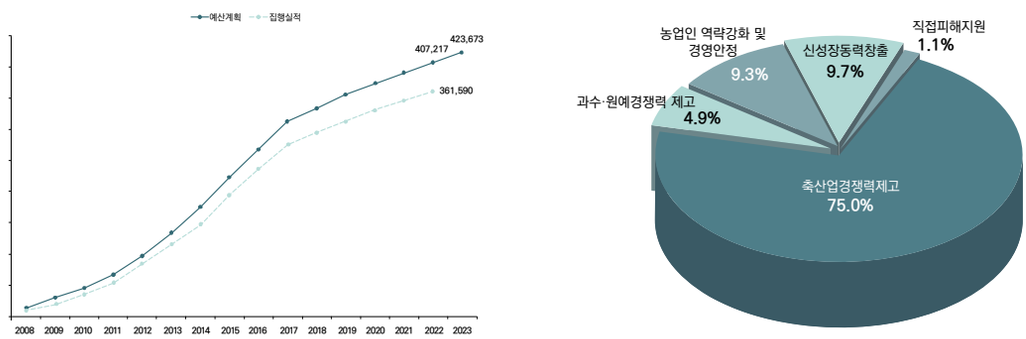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에 배정된 총예산은 40조 7,217억 원이었으며, 그중 88.8%인 36조 1,590억 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은 1조 6,456억 원이며, 정책목표별로는 품목별 경쟁력 제고(축산경쟁력제고, 과수원예경쟁력제고)가 1조 3,155억 원(79.9%), 근본적 체질 개선(농업인역량강화및경영안정, 신성장동력창출)이 3,121억 원(19.0%), FTA 직접피해지원이 180억 원(1.1%)으로 나타남.

그림 6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과 집행실적(누적 기준)

단위: 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기점으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으며, 정책목표별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품목 경쟁력 강화,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인력육성, 농식품수출확대 등의 성과를 나타냄.[8)]

- 축산업경쟁력제고 분야는 축사시설현대화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등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됨.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주요 가축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지원으로 농가의 사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됨.
- 과수원예경쟁력제고 분야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원규모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등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생산유통지원 중심으로 예산이 투입됨. 특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와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은 한·미 FTA가 종료된 이후 2022년 RCEP 국내보완대책의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통합·지원되고 있음.
- 농업인역량강화및경영안정 분야는 농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농기계임대 등 농가경영안정 관련 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 등 신규농업인력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투입됨.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017년 한·미 FTA 종료 이후 한·영연방 FTA(가축재해보험)와 한·중 FTA(농업수입보장보험) 국내보완대책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의 《2017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의 《2022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신성장동력창출 분야는 농식품수출확대, R&D투자확대,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투입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이 종료된 2017년 이후 신성장동력창출 분야 국내보완대책은 농식품해외시장진출,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축산물수출원료구매자금지원 등 농식품수출확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됨.

FTA 국내보완대책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시 품목별 경쟁력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 전략목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였으나,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종료 이후 축산경쟁력제고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는 흐름을 보임.

- FTA 국내보완대책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기간(2008~17년) 동안 축산경쟁력제고, 농업인역량강화및경영안정, 신성장동력창출, 과수원예경쟁력제고 순으로 모든 분야에 예산이 지원됨. 특히, 축산경쟁력제고 분야는 한·EU FTA 및 한·영연방 FTA와 같이 국내 축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FTA가 연속적으로 발효되면서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시 많은 예산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농업인역량강화및경영안정 분야는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종료 이후 농업재해보험, 농기계임대 등을 제외한 신규농업인력육성, 농업경영체역량강화, 농가경영안정, 영농규모화, 생산기반조성 관련 사업들이 FTA 국내보완대책에서 제외됨.

표 5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별 예산

	3천억 원 이상
	1천억~3천억 원 미만
	300억~1천억 원 미만
	100억~300억 원 미만
	30억~100억 원 미만
	10억~ 3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국내보완대책 일몰 및 사업종료

정책목표	세부 사업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총합계 (억 원)
축산 경쟁력 제고	축사시설현대화																	43,181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41,395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18,75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6,346
	축산경영종합자금																	14,412
	가축분뇨처리지원																	12,850
	시도가축방역																	11,811
	가축개량지원																	7,159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6,853
	원유수급안정																	5,210
과수원예 경쟁력 제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6,471
	인삼약용작물계열화																	3,798
	과원규모화																	3,089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1,784
	농산물브랜드육성																	1,457
	저온유통체계구축																	1,029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698
	신선편이시설현대화																	482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448
	계열화경영체육성																	198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농업재해보험																	25,761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																	19,068
	농지매입비축																	11,687
	수리시설개보수																	11,665
	밭농업직불제																	8,650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8,10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6,125
	경영이양직불																	6,075
	배수개선																	4,882
	농기계임대																	3,556
신성장 동력창출	시설원예품질개선																	7,439
	첨단온실신축지원																	6,000
	농식품해외시장진출																	5,964
	농생명산업기술개발																	5,793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3,834
	농식품모태펀드출자																	3,697
	친환경농업직불																	3,448
	청정임산물이용증진																	3,092
	축산물수출원료구매자금지원																	2,190
	친환경농업기반구축																	2,137

주: 정책목표별 예산 기준 상위 10개 사업만 제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05

주요 품목의 생산성 동향

주요 품목의 생산성 동향은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 기간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구분하여 비교함.

- A 구간: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전 5개년 평균(2003~07년)
- B 구간: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 전반기 5개년 평균(2008~12년)
- C 구간: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 후반기 5개년 평균(2013~27년)
- D 구간: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 후 최근 5~6개년 평균(2018~22년 또는 2003년)

5.1. 축산업

축산업은 농가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한우산업은 FTA 국내보완대책은 축사 시설 개선 및 현대화 등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 지원을 통해 한우 판매 체중 증가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한우 사육 마릿수는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전 5개년(2003~07년) 평균 184만 마리에서 최근 6개년(2018~23년) 평균 329만 마리로 79.0% 증가,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이후 연평균 8.1%씩 증가함.
- 한우 비육우 판매 체중은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전 5개년(2003~07년) 평균 628kg에서 최근 5개년(2018~22년) 평균 777kg으로 23.7% 증가,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07년 이전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다가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직후 5개년(2008~12년) 평균 58.8%에서 최근 5개년(2018~22년) 평균 74.2%까지 증가하였음.

돼지 산업은 FTA 국내보완대책은 축산업경쟁력강화 및 축산기술보급 사업 지원을 통해 비육돈 판매 체중 증가 및 번식돈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돼지 사육 마릿수는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전 5개년(2003~07년) 평균 922만 마리에서 최근 6개년(2018~23년) 평균 1천 118만 마리로 21.4% 증가,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이후 연평균 3.5%씩 증가함.
- 비육돈 판매 체중은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전 5개년(2003~07년) 평균 109kg에서 최근 5개년(2018~22년) 평균 114kg으로 4.0% 증가, 번식돈 마리당 연간 이유 마릿수(PSY)는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전 5개년 평균 17.5마리에서 최근 5개년 평균 20.4마리로 16.4% 증가함.

육계 산업 또한 FTA 국내보완대책 시행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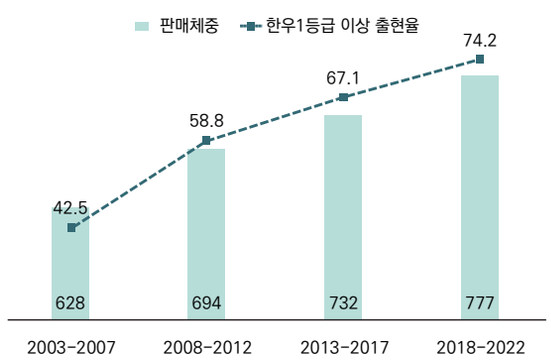
- 육계의 최근 6개년(2018~23년) 평균 사육 마릿수는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전 5개년(2003~07년) 평균 대비 각각 77.1%, 38.8% 증가, 육계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이후 연평균 2.3%, 산란계는 연평균 5.9%씩 증가함.
- 육계 일당증체량은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전 5개년(2003~07년) 평균 38.0g에서 최근 5개년(2018~22년) 평균 48.4g으로 27.3% 증가, 육계 육성률[9]은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전 5개년 평균 94.2% 수준을 보이다가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 5개년 96.3%까지 증가함.

표 6 주요 축산업 생산 및 생산성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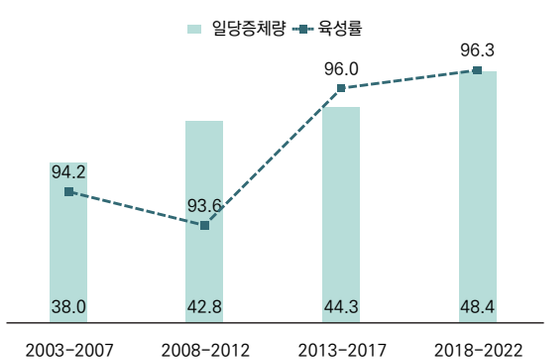
구분		FTA 국내보완대책 구간			
		수립 전 ('03~'07)(A)	전반기 ('08~'12)(B)	후반기 ('13~'17)(C)	최근 6년 ('18~'23)(D)
한우	사육 마릿수 (천 마리)	1,836	2,652	2,854	3,286
	농가당 사육 마릿수 (마리)	10	16	28	37
돼지	사육 마릿수 (천 마리)	9,218	9,328	10,366	11,187
	농가당 사육 마릿수 (마리)	744	1,318	1,948	1,882
육계	사육 마릿수 (만 마리)	5,139	7,042	8,187	9,099
	농가당 사육 마릿수 (마리)	34,015	45,165	52,287	59,365

축산물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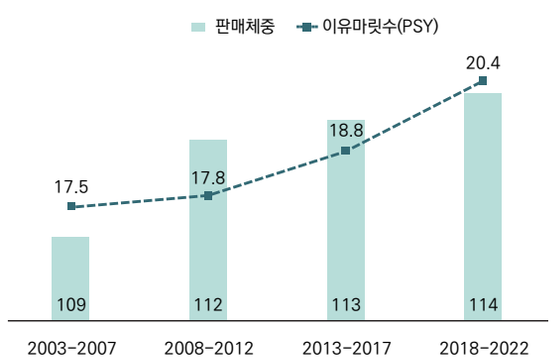
한우(단위: kg, %)



육계(단위: g/일, %)



돼지(단위: kg, %)



주: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의 한우 사육 규모별 농가 수는 2005년부터 집계되어 한우산업 동향의 사육 마릿수 및 농가 수 통계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https://kosis.kr/index/index.do), 축산물생산비조사, 가축동향조사, 검색일: 2024. 3. 6.

9) (해당 기간 출하된 육계 총 마릿수/해당 기간 입식된 병아리 총 마릿수)*100.

FTA 국내보완대책의 축산경쟁력제고 분야 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농가는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효과를, 축산물 도축·가공업체는 도축 능력 제고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효과를 분석했으며, 한육우 사육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수혜를 통해 사업비수혜 농가보다 1등급 출현율(2.9%)과 평균 체중(2.1%)은 증가하고, 폐사율(△15.4%)과 평균 노동시간(△0.8%)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은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사업의 도축능력 제고 효과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사업 수혜 업체는 1일 평균 소 도축마릿수가 60마리 더 증가했고, 1일 평균 돼지 도축 마릿수는 1,375마리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에서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의 효과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한육우 농가의 두당 생산비는 3.0~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통상자원부(2016)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효과를 분석했으며, 돼지 사육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수혜를 통해 사업비수혜 농가보다 1등급 출현율(5.9%)과 모돈 마리당 연간 출하 마릿수(MSY)(28.8%)는 증가하고, 폐사율(△35.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효과를 분석했으며, 육계 사육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수혜를 통해 사업비수혜 농가보다 마리당 생산비를 14.1% 절감하였으며, 산란계 사육 농가의 경우 사업 수혜 농가의 폐사율이 사업비수혜 농가 대비 41.6% 낮은 것으로 나타남.

5.4. 과수산업

FTA 국내보완대책은 과수산업의 기후 여건에 따른 품목별 작황 변화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 현대화,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경쟁력강화 사업과 우량묘목 생산, 품종개량, 브랜드화 사업 지원을 통해 과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사과, 배, 복숭아는 식물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된 품목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특히, 고정수요(제수용)가 존재하는 사과와 배는 면적 변화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였고, 생산성 변화도 거의 없었음.
- 과일 수입으로 인한 수요 대체 간접피해가 예상되었던 품목(사과, 배)은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소득기반 유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FTA 체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품목인 포도는 수입 포도에 대응한 품종개량 및 브랜드화(샤인머스캣) 지원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과수 생산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숭아는 식물검역으로 수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생산(포도) 및 수요 대체 간접피해가 발생한 품목으로, 포도와 마찬가지로 품종개량 및 브랜드화(신비, 옐로드림 등) 지원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감귤의 경우 FTA 체결로 인한 오렌지 수입 증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품목으로 농가당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산지 중심의 생산조절, FTA 국내보완대책의 품목 지원 사업, 지자체 지원 사업 활성화 등으로 생산성 및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배와 포도의 경우, FTA 국내보완대책의 식물검역 및 수출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한 수출 판로 개척의 성과도 존재함.[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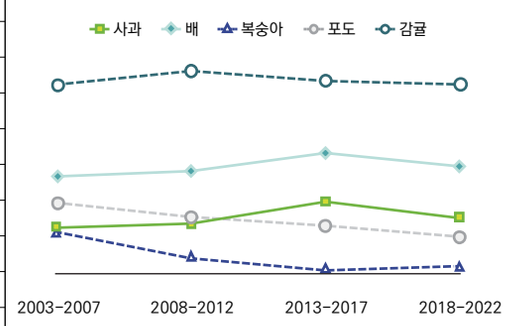
표 7 주요 과수산업 및 생산성 동향

단위: ha/호, 만 원/10a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사과	농가당 재배면적	0.78	0.85	0.84	0.73
	농가소득	321	297	358	322
배	농가당 재배면적	0.59	0.71	0.78	0.73
	농가소득	257	303	282	291
복숭아	농가당 재배면적	0.44	0.51	0.53	0.48
	농가소득	216	283	340	176
포도	농가당 재배면적	0.42	0.46	0.47	0.42
	농가소득	312	348	359	598
감귤	농가당 재배면적	0.86	0.78	0.74	0.64
	농가소득	214	215	162	216

단위 면적당 생산량

단위: kg/10a



주: 농가당 재배면적 및 소득자료는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기준으로 5개년씩 제시하였으며, 포도와 감귤의 소득자료는 노지포도, 노지감귤 기준임.
자료: 통계청(https://kosis.kr/index/index.do), 농림어업총조사, 농산물소득조사, 검색일: 2024. 3. 6.

FTA 국내보완대책 수혜 과수 재배 농가는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농업소득 증대와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은 FTA 국내보완대책의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효과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사과 재배 농가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수혜를 통해 사업비수혜 농가보다 당도가 0.54Brix 향상되었고, 농업소득이 196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배 재배 농가는 단위당 수확량 증가(643kg) 및 농업소득 증가(194만 원), 포도 재배 농가는 상(上)품 이상 출현율 증가(8.1%) 및 농업소득 증가(265만 원)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은 포도 재배 농가만을 대상으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효과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 수혜 농가의 당도 향상(1.59Brix)과 농가 판매가격 상승(926.2원/kg)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의 효과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과수거점 APC 도입을 통해 사과, 배, 감귤의 총 유통비용은 각각 8.6%, 7.8%, 10.1% 절감된 것으로 평가됨.

10) 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중 수출 물량이 많은 품목 중 하나이며, 2023년 對에콰도르 수출검역 협상 타결로 미국, 대만, 베트남 등 3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포도는 2015년 對중국, 2018년 對태국 수출검역 협상 타결로 5개국 수출이 가능해짐(농림축산검역본부, 검색일: 2024. 3. 22.).

06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ASEAN, 유럽연합(EU), 미국, 영연방과 중국 등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4년 4월은 FTA 이행 20년 주년임.

- FTA 체결 20년 차인 2023년 우리나라의 농식품 총교역액은 526억 3천만 달러, 총수출액 89억 7천만 달러, 총수입액이 436억 6천만 달러로 2004~23년 연평균 각 6.0%, 6.2%, 6.0%씩 증가함.

FTA 이행 초기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 활성화로 특정국에 교역이 집중되었으나, FTA 체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국가 간 교역 비율 변화, 교역 다변화 효과가 발생함.

- FTA 발효 20년 차인 2023년 우리나라 수입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입집중도는 0.46으로 2004년(0.51) 대비 9.8% 감소했고 최근 5년(2019~23년)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 FTA 발효 20년 차인 2023년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출집중도는 0.28로 2004년(0.36) 대비 22.2% 감소했고 한·아세안 FTA 발효 후 2017년까지 꾸준한 하락 추세를 보임.
- FTA가 특정 국가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다양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부 국가에는 교역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FTA 체결국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집중도가 낮아지는 품목은 돼지고기, 감자, 바나나 등이며 수출집중도가 낮아지는 품목은 김치, 배 딸기 등으로 나타남.
- 다만, 닭고기의 경우 FTA 미체결국인 브라질로부터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옥수수도 FTA 미체결국인 남미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향후, 현재 협상 중인 FTA가 체결되거나 IPEF와 같은 메가 FTA 체결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을 통해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은 품목별 경쟁력 제고(축산경쟁력제고, 과수원예경쟁력제고) 및 근본적 체질 개선(농업인역량강화및경영안정, 신성장동력창출)의 전략목표를 가진 중장기 투융자 대책임.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축산경쟁력제고를 중심으로 과수원예경쟁력제고, 농업인역량강화및경영안정과 신성장동력창출 등 모든 사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예상 피해가 컸던 만큼 투입된 예산도 컸음.
- 한·EU와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은 축산경쟁력제고 분야에 많은 예산이 배정됨. 이에 따라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이 종료된 2017년 이후 축산경쟁력제고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일몰되거나, 일반 농정사업으로 전환되었음.

FTA 국내보완대책은 국내 농축산업 구조변화에 따라 규모화 및 생산성 증대 등 성장 중심의 지원 성과(축산)와 생산 기반 유지 및 고품질 전략 등 피해상쇄 중심의 지원 성과(과수)가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수혜 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농업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경쟁력제고(축산경쟁력제고, 과수원예경쟁력제고) 분야는 예산 투입 규모가 크고 국내 축산 및 과수·원예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보완대책 지원 전·후 생산성 변화를 통해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음.
- 축산 분야는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후 국내 육류 소비 증가 영향으로 산업 규모가 성장함과 동시에 한·미, 한·EU,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등 대규모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됨. 이에 따라 생산의 규모화(농가당 사육 마릿수 증가, 대규모 사육 농가 비율 확대)와 생산성 향상(한우 판매 체중, 돼지 PSY, 육계 육성률, 산란계 산란율 증가) 및 품질 향상(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증가)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남.
- 과수 분야는 시장개방의 영향의 직간접 여부에 따라 FTA 국내보완대책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FTA 체결로 인한 간접피해(수요 대체) 품목인 사과와 배는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 이후 생산성 향상과 소득기반 유지 효과를 보였으며, 직접 피해 품목인 포도와 생산·수요 대체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복숭아의 경우, 다양한 품종 재배 시도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보임.
-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FTA 국내보완대책을 지원받은 축산농가는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생산비(노동시간, 방역치료비 등) 절감 효과를, 축산물 도축·가공업체는 도축 능력 제고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FTA 국내보완대책을 지원받은 과수 재배 농가는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농업소득 증대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평가됨.
- 지원 품목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FTA 국내보완대책은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을 통한 변동성 완화, 농기계임대 사업 지원을 통한 밭작물 생산비 절감 등 농가 경영 전반적인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남.[11)]

최근 들어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증가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서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은 기존과 같이 FTA별 영향 평가 결과에 기반한 피해 예상 품목 경쟁력 제고 중심의 지원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농가 경영안정 지원대책에 초점을 맞춰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2022, 2023년 보고서를 참조함.

부록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부표 1 농식품 주요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2022년 (A)	2023년 (B)	변화율(%)		주요 국가 (FTA 체결국)
								전년 대비 (B/A)	연평균 (2004~23년)	
혼합조제 식료품	386	414	675	817	887	1,152	1,020	-11.5	5.2	중국, 미국, 베트남
라면	156	129	206	290	604	765	952	24.4	10.0	중국, 미국, 네덜란드
기타 음료	11	39	152	214	266	342	395	15.4	20.6	중국, 미국, 베트남
커피 조제품	81	196	297	259	275	330	327	-1.0	7.6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중국
기타 소스제품	7	22	45	85	167	197	201	2.0	19.2	미국, 중국, 베트남
기타 베이커리 제품	17	35	84	99	146	159	195	22.5	13.7	미국, 중국, 호주
자당	74	128	263	168	138	155	183	18.3	4.9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곡류 조제품	30	35	43	44	93	148	174	18.0	9.8	미국, 중국, 호주
김치	103	85	107	79	145	141	156	10.5	2.2	미국, 네덜란드, 영국
물	16	19	62	107	132	153	150	-1.6	12.5	캄보디아, 중국, 네덜란드
비스킷	45	60	109	152	118	137	140	2.2	6.1	미국, 중국, 캐나다
기타 조제 식료품	7	9	23	34	87	102	119	16.4	16.0	미국, 베트남, 네덜란드
기타 파스타	22	28	35	42	85	112	113	1.4	9.1	미국, 네덜란드, 호주
닭고기	2	13	36	37	76	99	88	-11.2	21.0	베트남, 미국, 캐나다
아이스 크림	3	13	33	39	53	70	86	24.0	19.3	미국, 필리핀, 캐나다
단일과실 조제품	22	34	69	71	51	78	82	4.5	7.1	중국, 슬로베니아, 미국
홍삼	41	42	65	37	57	74	81	9.4	3.7	중국, 베트남, 미국
배	35	47	50	66	72	74	75	0.2	4.0	미국, 베트남, 캐나다

(계속)

구분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2022년 (A)	2023년 (B)	변화율(%)		주요 국가 (FTA 체결국)
								전년 대비 (B/A)	연평균 (2004~23년)	
조제분유	8	24	57	121	91	106	74	-30.0	12.5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딸기	4	12	24	34	54	59	71	21.2	16.1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스턴트 면	16	12	36	38	58	57	66	16.3	7.7	미국, 캐나다, 독일
기타 과실	7	10	25	47	77	72	65	-9.0	12.6	중국, 미국, 베트남
파프리카	43	54	89	94	86	73	64	-12.2	2.1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인삼음료	8	8	15	16	54	62	63	2.3	11.8	중국, 베트남, 미국
홍삼 조제품	2	6	20	26	56	72	63	-12.6	19.6	중국, 베트남, 미국

주 1) 2023년 수출액 기준으로 목재, 석재, 주류, 사료, 가죽류, 궐련류를 제외한 상위 25개 품목을 선정함.
2) 혼합조제식료품에는 글루탐산나트륨, 아미노산,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과 같은 식품 첨가물이 포함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4. 1. 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2 농식품 주요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2022년 (A)	2023년 (B)	변화율(%)		주요 국가 (FTA 체결국)
								전년 대비 (B/A)	연평균 (2004~23년)	
쇠고기	600	1,051	1,410	2,284	3,123	4,508	3,847	-14.7	10.3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옥수수	1,438	2,830	2,617	1,909	2,388	4,292	3,559	-17.1	4.9	루마니아, 미국, 불가리아
혼합조제 식료품	336	498	848	1,258	2,101	2,572	2,394	-6.9	10.9	미국, 중국, 독일
돼지고기	352	876	1,207	1,363	1,479	2,168	2,028	-6.5	9.6	미국, 스페인, 캐나다
밀	665	1,314	1,790	1,023	980	1,801	1,688	-6.3	5.0	호주, 미국, 불가리아
커피	96	289	477	563	738	1,305	1,111	-14.9	13.8	콜롬비아, 미국, 스위스
사탕수수당	309	529	986	676	592	902	942	4.5	6.0	호주, 태국, 엘살바도르
대두	487	813	747	609	616	957	925	-3.3	3.4	미국, 중국, 캐나다
치즈	120	239	360	429	629	793	863	8.8	10.9	미국, 뉴질랜드, 독일
닭고기	55	154	300	266	402	613	674	10.0	14.1	태국, 중국, 덴마크
팜유	115	231	340	308	407	826	617	-25.3	9.2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두유	147	345	425	189	313	617	566	-8.1	7.4	베트남, 태국, 중국
감자	47	59	121	174	195	288	308	7.1	10.4	미국, 벨기에, 중국
바나나	87	154	250	328	276	284	305	7.4	6.8	필리핀, 베트남, 코스타리카
쌀	82	195	169	265	375	454	259	-42.9	6.2	중국, 미국, 베트남
캔디	34	47	72	153	187	207	254	22.6	11.2	중국, 독일, 터키
초콜릿	78	103	170	220	222	242	244	0.6	6.2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참깨	81	118	126	111	130	235	237	0.6	5.8	중국, 베트남, 인도
면양고기	8	14	24	60	133	239	229	-4.4	19.3	호주, 뉴질랜드
오렌지	183	170	290	252	226	204	227	11.1	1.1	미국, 스페인, 호주
버터	9	13	31	39	89	202	217	7.4	18.4	뉴질랜드, 프랑스
고추	65	88	155	117	170	173	191	10.6	5.8	중국, 베트남
생우유	8	4	35	52	99	181	190	4.8	18.5	이탈리아, 프랑스
김치	29	113	111	121	152	169	164	-3.4	9.4	중국
포도	42	110	195	175	213	182	160	-12.0	7.4	칠레, 미국, 페루

주 1) 2023년 수입액 기준으로 목재, 석재, 주류, 사료, 기타류를 제외한 상위 25개 품목을 선정함.
2) 혼합조제식료품에는 글루탐산나트륨, 아미노산,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과 같은 식품 첨가물이 포함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4. 1. 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2016),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2016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2017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2020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2021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2022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USDA(2023), Livestock, Dairy, and Poultry Outlook: September 2023.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검색일: 2024. 3. 22.
통계청(https://kosis.kr/index/index.do), 가축동향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농산물소득조사, 축산물생산비조사, 검색일: 2024. 3. 6.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4. 1. 18.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main/), 검색일: 2024. 1. 23.
농민신문(2024. 1. 19.), “지난해 ‘식용 밀’ 수입 왜 줄었나…러·우 전쟁으로 서둘러 들여온 기저효과”.

KREI 농정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